

日帝末期 韓國文學과 地方主義

朴秀淵*

1. 지역을 논의하는 관점
2. 컬리티의 정치학
3. 풍토, 풍경, 향토, 고향 그리고 민요시
4. 신지방주의의 일제말의 맥락
5. 결론

1. 지역을 논의하는 관점

이 논문은 최근의 로컬리즘(localism)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일제말기 조선에서 전개되었던 지방주의적 문학론을 분석해보려는 것이다. 일제말의 반서구주의의 이념이 동양이라는 또 다른 중심축으로의 이동을 감행하는데 작용한 매개적 개념이 바로 지역이다. 논의를 위해 우선 필요한 일은 ‘지역’이라는 개념을 보편적 쓰임새를 갖도록 확정하는 일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오랜 시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지구화(globalism)’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이미 ‘Glocism’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반증한다. 지구적으로 사고하면서 지역적 현안에 대해 동시적 고민을 진행한다는 의미를 함축한 이 용어가 한국에서는 ‘地球地域化’라는 말로 번역되고 대만에서는 ‘全球在地化’라는 말로, 중국에서는 ‘全球本土化’, 일본에서는 ‘글로벌리즘’이라는 말로 사용되는 사례는 이미 지구화시대의 지역문제에 대한 많은 사유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좋은 증거이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한 사유가 이미 일제시대에서부터 진행된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제말의 동양론은 이미 서구적 근대에 대비되는 지역으로서 동양을 상징하고 있다. 중앙에 대비되는 곳으로서의 지방(province)이라는 용어 대신 지역(region, area)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사정도

*忠南大學校教授

그 논의의 결과이다. 그런데, 지방이라는 용어대신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암시 받을 수 있듯이, 현실적이거나 학문적이거나를 막론하고 ‘지역’은 일정한 정체성으로 묶일 수 있는 충분한 무엇인가를 항상 전제하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하나의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 스스로 규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닮고 싶은 또 다른 지역의 속성을 자신의 지역에서도 찾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한다. 가령, 동양의 문학이 정적이고 카오스적인 이미지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서구의 문학이 역동적이고 합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일제말기 교토학파의 풍토론자 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 만의 것이 아니다. 지역은 바로 그런 술어들에 의해 범주화되는 것이고, 그 결과 자기 규정적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게 된다.

물론 모든 규정은 공백이나 과잉을 가지기 마련이고, 따라서 지역에 대한 규정은 또 다른 잔여들에 의해 계속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익명의 잔여일지도 모른다. 그 익명의 잔여를 ‘소수자’라는 용어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자-유력자’에 의해 강요되거나 배제된 정체성의 문체가 이때 제기되는데, 그 강요된 영역의 경계선 외부가 바로 잔여나 소수자-약소자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소수자-약소자는 바로 그 외부적 위치 때문에 강한 자기규정적 동일성의 억압성을 벗어나는 존재, 혹은 억압적 담론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강조되어 왔다. 그 강요된 정체성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자율적 능력을 펼쳐 보일 때 소수자-약소자의 사회적 역할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담론적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소수자-약소자는 주류적 정체성의 강한 자기 동일성을 위반하고 그에 균열을 일으키며 따라서 동일성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존재들이다. 지역의 자기규정성이 지속적으로 소수자-약소자로서의 잔여에 의해 보충되거나 전복되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때 지역의 자기동일적 정체성은 지역 자신의 잔여에 의해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야 하는 셈이다. 김종한의 변모하는 민요 개념, 소멸되는 조선 등등,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당대의 조선 민족주의를 비판하거나 세계의 억압적 담론 비판하기 등등이 그것일 것이다.

그런데 T. 이글턴은 『이론 이후』에서 이론의 시대를 이끌었던 포스트구조주의에 의해 집중 조명된 ‘소수자’가 실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낭만적 관념이라는 점을 ‘인도의 반제국주의자는 다수자’라는 말을 통해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그는 이어서 정체성의 불안이 야말로 사회적으로 배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포스트구조주의의 담론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자기 입장을 재확인한다. 황순원의 소설 속 ‘눈물’이 바로 그것을 대변하는데, 동일한 사태에 대한 이러한 경합적 해석은 하나의 지역을 동일성의 상태로 묶어두는 일정한 경계선이 생각만큼 그렇게 강인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것은 개별적 실존체와 관련된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의 유럽통합과 관련하여 ‘경계선/국경선’의 유동성에 주목하는 E. 발리바르를 따르면 “경계들은 정치적 동일성들의 제도적 고정점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바로 이 동일성들이 불확실해지고 과잉 규정되는, 때로는 강제로 재정의 되어야 하는 지점을 구성하기도 한다.” 요컨대 하나의 정체성이 강한 자기동일성만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로 잔여의 복합체만으로 구성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동일성을 비판하거나 또 그 반대의 경우가 성립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의 강한 자기 규정성에 사로잡힌 형식논리의 면모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그러므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력한 중심에 대응하는 약소 지역이라는 관점이나 바로 그 약소성의 지위를 이용해 다수적 중심의 억압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는 하지만 온전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강한 자기동일성만이 거대한 중심에 대한 유력한 대응방안이라는 주장 또한 그 자체로 온전한 것일 수 없다.

이 이론적 면모를 전제 삼아서 이 글에서는 김종한을 중심으로 일제말의 향토론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를 위해 두 가지의 개념들이 원용될 것이다. 로컬리티와 향토가 그것이다. 이 둘이 상호보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면, 이와 함께 우리는 식민지적 숭고라는 문제설정의 필요성도 주장할 것이다. 주로 비유되어 논의되는 시인이 김종한이라고 해도, 이 글은 본격적인 김종한론

은 아니다. 다만, 식민지시대 말기의 향토론이 최근의 로컬리티 담론과 연결되는 지점을 식민지적 숭고라는 개념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 그가 비유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글은 최근의 로컬리티 담론에 동기화되어 씌어지면서, 그 담론과 함께 고려해볼만한 몇 개의 개념들을 공식적인 논의선상에 올려놓기 위한 의도를 주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컬리티의 정치학

왜 ‘로컬리티’인가. 그것은 사람들의 소망대로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의 식민화 권력에 맞서는 역량을 동기화하는가. 지역적 삶의 소중함을 자각해야 한다는 지구지역화론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로컬리티’라는 문제설정 행위는 근대적 국민국가 체제 하에서 주변화되고 소외되었던 존재들과 영역들을 주권적 존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된다. 논의를 위해 개념적 규정 하나를 인용해 두기로 하겠다.¹ “로컬리티는 자연적으로 주어지거나 고정된 실체(reality)가 아니라 로컬에 토대를 둔 행위 주체들의 다양한 (비)물질적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 • 변화하는 성질”이라는 규정이 그것이다. 이 로컬리티를 구성하는 요소는 “사람, 사회, 문화, 경제 조직과 제도, 자연과 건조 환경, 공간 등이다.” 공간을 차지하면서 시간 속에서 변모하는 것으로서의 로컬리티는 그러므로 삶의 객관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위치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로컬리티로서의 구체성은, 근대라는 역사적 시간 속에서 나타난 삶과 사유의 벡터가 지나치게 보편주의적이고 따라서 추상적이며 일방적이고 서구중심적인 권력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요청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청적 구체성에 동의할 수 있다면 그 공간에 대한 이해도 서구중심적이고 보편주의적인 폭력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일까?

너무 많이 인용되어서 이제는 근대문학의 출발에 관한 한 거의 정언명법이 된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 가라타니 고진의 말에서 시작하도록 해보자.

¹박규택, 「로컬의 공간성 이해를 위한 이론적 틀」, 『한국민족문화』 33, 2009.3. 161면.

풍경이 일단 성립되면 그 기원은 잊혀져 버린다. 그것은 처음부터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객관물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거꾸로 풍경 안에서 성립한 것이다. 주관 또는 자기 자신 역시 마찬가지이다. 주관(주체)/객관(객체)이라는 인식론적 공간은 <풍경>에 의해 성립된 것이다. 즉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풍경>에 의해 성립된 것이다.²

풍경의 발견을 내면적인 것의 전도와 연결시킴으로써 객관세계에 대한 재현이 하나의 초월론적(transcendental)인 장의 전도를 전제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진술이다. 우리는 ‘풍경의 발견’이라는 말을 ‘대상에 대한 새로운 현실적 의미화’라고 불러도 될 것이다. “발견”은 ‘이미 그곳에 있었는데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되는 것이 문학적 발견이라면, 바르뜨가 문학언어를 ‘낭비하는 언어’라고 설명했다는 사실도 떠올려볼 수 있다. 문학이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당대의 인식론적 장의 조건들에 연루되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처음으로 보고 형상화하는 사태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요컨대 문학은 ‘찾아내어 써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작가들, 사이 나아가 시대 사이에는 그 낭비의 방식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라타니 고진은 근대적 인간형의 내재성을 전제하고, 구니키다 돗포의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주위의 외적인 것에 무관심한 <내적 인간>에 의해 처음으로 풍경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내적 상황의 구체성에 따라 외적 풍경의 구체성 또한 확보된다고 써도 될 것이다. 구체성이란 내적 인식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 셈이다.

고려해야 하는 것은 또 있다. 1장의 끝에 덧붙여진 'afternote'³에서 가라타니 고진은 이렇게 말한다.

<풍경의 발견>에는 단순히 내면적인 전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풍경, 즉 과거의 텍스트가 완전히 잠식하지 않은 풍경의 발견이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메이지 시대까지 그 남단까지밖에 일본인이 살지 않았던 북방의 섬 홋카이도의 발견이다.

²가라타니 고진, 박유하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48면.

³afternote는 영어판(1993)에만 들어 있는 것을 한국어 번역(1997년 판)에 추가한 것이다. 위의 책 56면.

실제적인 것으로서의 새로운 풍경이 이른바 ‘발견된 것으로서의 풍경’에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고진에 따르면 새로운 발견은 ‘숭고’라고 할 만한 것의 발견이었다. 요컨대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내적 직관 같은 것을 통해 수용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풍경의 발견은 일종의 ‘식민지적 숭고’였으니, 홋카이도는 이후 내부 식민지화의 과정을 걷는 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⁴ ‘새로움’ 자체가 미지의 대상에 대한 주관화의 과정일뿐더러 ‘숭고’ 또한 그 대상에 대한 심미적 주관화였다. 근대적 식민화란 그 식민화의 정치적 성격을 망각하는 주관적 변형을 통해 대상을 숭고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심미적인 것과 과시즘의 공모 관계를 볼 수 있다.

야나기다 쿠니오의 일본민속학과 그 민속학의 대상인 ‘상민(常民)’의 탄생도 이 과정에 연루되어 있음을 고진이 말하고 있거니와, 이 탄생에는 식민적 동화주의의 실패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⁵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때 풍경은 상민 즉 ‘보통사람’이 그가 살고 있는 주위 세계와 함께 시간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가리킨다. 하나의 건물이 풍경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에 비해 ‘풍토’는 ‘기후, 기상, 지질, 지형, 경관’의 자연물로서 ‘나’와 ‘타자’가 공동성의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케 하는 것이다.⁶

⁴고진은 이후의 개정판에서 더 이상 홋카이도를 언급하지 않는다. 홋카이도의 발견에 대해서도 ‘식민지적 숭고’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 용어는 필자의 것이다.

⁵가라타니 고진이 설명하는 야나기다 쿠니오의 ‘상민(常民)’이 ‘타자’에 대한 배제를 통해 성립된 것임을 무라이 오사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가 두 개의 북방(북해도와 한국)을 잘라내고, 남도(오끼나와 : 인용자)에서 자기 동일한 ‘원(原)일본’을 발견했던 것은 동시적이었다. 바꿔 말하면, ‘한일 병합’에서 민족을 초월한 ‘국민 = 황민’의 창출이 기대되었으나, 결국은 동화의 파탄 때문에 ‘산사람(山人)’(이민족이며 타자인)을 배제한 환상적인 ‘상민(常民)’이 발견된 것이다. ‘황민’라는 상상의 공동체와 어긋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야나기다 쿠니오가 이러한 내용의 식민주의와 맺는 사정에 대해서는 村井 紀, 『南島イデオロギーの發生』, 岩波書店, 2004, 214면 참조.

⁶야나기다 쿠니오의 ‘풍경’과 와쓰지 데쓰로의 ‘풍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해서는 安彦一恵 · 佐藤康邦, 『風景の哲學』, ナカニシヤ出版, 2005, 158~163면 참조.

그러므로 나와 타자가 공동성의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케 한다고 해서 풍토론이 곧 이상적인 것으로 이념화된 공간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풍토’가 식민주의적 공간 관념에 직결되는 것은 아닌 셈인데, 오히려 관념적으로 이상화된 삶의 공간을 환기하는 개념은 ‘고향’이다. 풍토론이 농촌의 물질성과 결합되어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적 환경을 기술한다면, 이 풍토론에 이상화된 삶의 공간으로서의 ‘풍경-고향’ 의식이 결합되어 종종 민족주의적으로 이념화되는 ‘풍토-향토론’이 등장한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향토는 고향의식의 작용과 함께 발견된 것이다. 여러 국민국가 구성의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다른 고향을 가진 이웃과 ‘지금-여기’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다른 고향의 모습이 겹쳐지고 ‘동질성’과 결합에 의한 ‘단일한 고향’이라는 보편화”⁷가 작용하는 것이다.

풍경과 고향이 구성되거나 발견된 것이고, 그것이 자연환경적 물질성과 결합하여 향토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토 또한 발견된 것이라고 해야 한다. 그것은 요컨대 조선과 같은 피식민화의 경험을 거친 지역에서는 식민주의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로컬리티는 변모하는 것으로서의 풍경과 자연환경적 물질성의 풍토를 가리키는 것이며 향토는 곧 풍토에 이상화된 이념형적 고향의식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다.⁸

조선이라는 외지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한 지역이었지만, 그 지역의 풍속을 강조하는 행위는 향토성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조선에서 국민학교 제도가 도입될 무렵 향토론이 억압되었던 것⁹은 그 향토에 대한 논의가 환기할 수 있는 생득적 토지애와 같은 것이 일제에 대한 저항을 환기할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때 향토는 직간접적으로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이때

⁷쓰보이 히데토, 「노래와 고향의 재창조」, 『‘고향’의 창조와 재발견』, 역락, 2007, 51면.

⁸『風景の哲學』의 저자들은 고향을 풍경과 연결시키고(이것은 상투화될 수 있는 개념으로 존재한다) 농촌을 풍토와 연결시킨다(이것은 구체적 물질성으로 존재한다).

⁹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룬다.

의 정치성이란 곧 식민지 권력에 대한 대응력과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그러므로 식민지적 공공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식민지적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그 향토에 대한 논의를 정치적인 것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공공성이란 단지 제도적인 조건들의 공식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에 대해 묻고 답변하는 의사소통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개념이 특히 정치학적이고 법학적인 것으로 고려될 때 그렇다. 혼자 행하고 관찰하는 법과 정치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니까, 여기에는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인간행위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내면화하도록 하는 지향점이 있다고 해야 한다. 정치학에서 ‘타자를 위한 심사숙고’의 개념이 등장하듯이 법학에서 ‘숙려 민주주의의’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은 그 둘이 유사한 영역의 인간 행위의 공공성에 대해 사유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조선지역의 문학 논의가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촉발시키는 것은 그 ‘지역’이라는 용어가 동반하는 ‘예속-주체화’(E. 발리바르)가 바로 그 ‘예속-주체화’의 항상적 전제인 ‘함께 있음’의 상태를 환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변용하는 공공성’으로서, “공공성은 어떤 고정적인 사회적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으로 전환할 때 유발되는 정치적인 효과”¹⁰라고 할 수 있다. 김종한과 조선 문인들이 조선적인 것에 대해 물어올 때 내지 출신의 재조일본 작가들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바로 그 식민지적 공공성이 제국의 정치에 대해 가하는 균열의 가능성에 대한 예민한 반응이었던 셈이다.

일본 문인들의 예민한 반응이 곧 조선 문인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향토이든 지역이든, 문제는 그 개념이 어떤 힘의 작용 방식과 결합되는가에 따라 때로는 인류의 삶의 구체에 긍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향토 문제가 향토민들에 의해 능동적으로 제기될 때와 억압적 권력에 의해 주형된 것일 때의 차이가 물론 가장 큰 차이일 것이다. 일제말기의 조선 향토론이 보다 주의 깊게 살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어떤 목적론적 힘에 의해 발설된

¹⁰윤해동, 「식민지 근대와 공공성: 변용하는 공공성의 지평」, 『식민지 공공성-실체와 은유의 거리』, 책과 함께, 2010, 27면.

것일까? 목적에 의해 제기된 것이었다면 그것은 어떤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을까?

3. 풍토, 풍경, 향토, 고향 그리고 민요시

김종한의 창씨명이 월전무였다는 사실은 식민지시대를 살아가는 그의 심정이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잘 알려준다. 1942년 7월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월전무(月田茂)는 글자 그대로 ‘달빛이 무성한 밭’을 뜻할텐데, 김종한은 그의 시집 『어머님의 노래(たちねのうた)』 발문에서 “달빛 찬란한 논(田) 동네”에 위치한 고향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고향집과 고향 동네를 범박하게 ‘향토 native place’라는 말로 전용(轉用)할 수 있을 것이다. ‘향토’가 1930년대에 들어와서 발견되었다는 사실¹¹은 1930년대 조선의 식민지적 근대화가 도시를 형성시키고 그에 대비되는 ‘농촌-풍토’를 동질적 고향으로 바라보도록 강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 민요와 같은 전통적 시가 형식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도 주목해 둘 일이다. 1920년대 조선의 민요시가 바로 그것이다. 김종한은 그의 나이 15세인 1928년 □조선일보□(1928. 1. 5)에 「가을비」와 「하소연」을 발표하여 민요시인으로서의 자질을 세상에 알렸다. 1933년에는 □동광□(1933. 1. 12), 1934년에는 □별건곤□(1934. 2)을 거쳐 1935년에는 □조선일보□ 신춘문예 공모에서 「베짜는 각씨」가 당선되었다. 이 민요시의 세계가 김종한에게 현대적인 것보다 전통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고무시켰으리라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액 전통은 그가 돌아가서 안주할 수 있거나 안주해야만하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그것은 아니었다. 민요시는 그에게는 차라리 낯익은 리듬을 언어화한 문학적 결과였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그가 여러 편의 민요론도 작성했으며, 그 민요론이 그의 시적 변화를 이미 논리적으로 내재화한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민요론과 그의 시적 변화가 고루한 것으로서의 민요를 시대적인 것으로서의 민요로 역사화시켰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의 문학적 관점은 미학주의자의 것이었는데, 「증오의 윤리」에

¹¹한만수, 「1930년대 ‘향토’의 발견과 검열 우회」 『‘고향’의 창조와 재발견』, 역락, 2007.,

서 그가 말하는 것을 따르면 그의 문학은 시대적 응전이 아니라 개인적 삶으로부터 촉발된 미의식의 소산이었다. “흔히 세상사람들은 사회를 위하여 문학을 시작했다는 말을 공언하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베아트리체를 증오할 방편으로 시를 시작했다.”¹²는 것이다. 이것이 시대적 소명의식을 강조한 문인들에 대해 신세대 의식으로 무장한 한 젊은 시인의 치기만만하고 과장된 고백이었다고만 할 수 없다면, 민요의 변모를 김종한이 옹호한다고 해도 그것을, 삶의 변모로서의 과거의 현재화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변모하는 전통으로서의 민요라고 해서 김종한의 전통론을 ‘역사 되감기’¹³와 같은 시도였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다케우치 요시미에게 되감기는 현재를 극복하려는 보다 분명한 자각이 있었던 반면에 김종한에게는 현재 극복이 아니라 자신의 문학적 능력을 실현하고 완성하려는 미적 집중 과정에 현재적 현실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다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신민요에 대한 관심이 세간에 유행 변모하는 시가 형식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촉발된 것¹⁴이라고 해도, 그 신민요에 동반되는 ‘향토, 고향, 풍토’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소재적 대상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조선사회는 이미 고향과 향토에 대한 ‘식민지적 공공성’의 수준에 진입하고 있었다. 그 정치성의 향방이 친일적인가 반일적인가의 문제는 아직도 논쟁 대상이지만, 당대의 향토성은 그 두 가지 방향 모두에 걸쳐 있었다. 그러므로 최근의 여러 포스트식민주의적 연구가 보여주듯이 ‘향토 : 고향 : 풍토’에 대한 논의 사실 자체가 곧바로 반서구적 동양론에

¹² 김종한, 「憎惡의 倫理」, 『매일신보』, 1941. 8. 7.

¹³ 다케우치 요시미의 용어이다. 다케우치 요시미, 윤여일 역,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내재하는 아시아』, 휴머니스트, 2011, 64면 참조. 다케우치 요시미는 서구중심주의와 동양적 배태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논하는 자리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다. “서구의 우수한 문화가치를 보다 큰 규모에서 실현하려면 서양을 다시 한번 동양으로 감싸 안아 거꾸로 서양을 이쪽에서 변혁시킨다는, 이 문화적 되감기 혹은 가치상의 되감기를 통해 보편성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그는 말한다.

¹⁴ ‘유행 변모하는 것으로서의 민요’와 ‘전통적 실체로서의 민요’라는 관점이 당시 김종한과 김사엽 사이에 벌어진 지상 논쟁의 주요 내용이었다.

연동된 천황제 파시즘에 직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선 향토론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억압은 그 사실의 한 가지 반증일 것이다¹⁵.

근대적 교육과정에서 ‘향토’라는 용어가 맨 처음 등장한 것은 1895년 소학교규칙대강학부령 지리규정이다. 그리고 1930년대 향토교육 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소학교와 중등학교의 지리교과서에는 ‘향토’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¹⁶ 그러나 1941년부터 실시된 국민학교 제도 하의 지리 교육에서는 그 ‘향토’라는 용어에 대한 의도적 배제가 이루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교과목이다. 일본 문부성은 『향토의 관찰』이라는 교과목을 통해 ‘향토의 관찰’에서 시작하여 우리 국토 및 동야를 중심으로 하는 지리의 대요를 교수하여 우리 국토를 바르게 인식시키고, 우리 국세의 대요를 교수할 것’을 도모하는데, 조선총독부는 동일한 내용과 목적의 교과목을 『환경지리의 관찰』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놓고 있는 것이다.¹⁷ 교과서의 제목이 바뀌게 되는 이유는 ‘향토’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그릇된 관념을 연상시켜 그릇된 향토관 혹은 향토애, 나아가서는 왜곡된 조국애 내지는 편협하게 하여 독선적 또는 차별적 혹은 봉건적이라고도 할만한 감정을 유발하고 온양시키는 경향”¹⁸을 만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의 조선총독부의 「언문신문지면쇄신요령」(1937)은 “조선의 역사적 인물, 산악, 고적 등에 관한 기사

¹⁵문제는 그 향토론이 하나의 절대적 지방주의가 되어 그 지방 이외의 영역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나타난다. 요컨대 하나의 주의는 배제의 논리로서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포괄적 보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보편은 행동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실재의 윤리로서 삶을 규제하는 것이다.

¹⁶이는 1930년대에 확대되기 시작한 초등교육정책이 一面一校制와 이 정책에 부응하는 조선인들의 기부금 후원에 따른 결과라고 여겨진다. 일면일교제에 대해서는 朝鮮總督府學務局, 「朝鮮總督府ニ於ケル一般國民ノ教育普及振興ニ關スル第一次計劃」, 1928 ; 식민지시대 초등교육의 전개에 대해서는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을 참조.

¹⁷이 사실의 전말에 대해서는 심정보, 「문부성과 조선총독부의 초등학교 국민과 지리에 특설된 「향토의 관찰」과 「환경의 관찰」의 비교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 17, 2009. 참조.

¹⁸심정보, 앞의 글, 93면.

로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배일사상을 고조함과 같은 혐의가 있는 것은 이를 게재하지 말 것”¹⁹이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향토라는 개념은 이렇게 총독부에 억압되어야만 할 정도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용어였다. 하나의 개념은 단지 추상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총독부가 우려한 것도 개념 너머의 실체가 초래할 수 있는 모종의 사건들이었을 터이다. 그러므로 향토론의 배경에 동양론이 작용하고 있으리라는 가능한 혐의 때문에 모든 향토론을 ‘전도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는 없다. 정작 필요한 것은 동양, 조선, 향토에 대한 개념적 의미화와 유형화 작업인 셈이다.

그렇다고 해도, 김종한의 문학적 출발에 향토적인 것이 수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문학적 행보를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민요시에서 출발하여 친일협력시의 언어 미학으로 나아간 김종한에게서 민족주의적 감정과는 다른 ‘향토론’을 보는 것은 그러므로 매우 의미심장하다.

혹은 향토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향수를 가르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일본의 국체와 국학을 말하는 것 : 인용자)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기우인 것이 사실 명일의 조선문단을 질머질 삼십오세 미만의 청년들에게는 실감으로서의 민족주의란 것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만일 향수가 있다면 그것은 차라리 세계적인 자유주의의 부산물로서의 어떤 기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략) 이러한 근거가 박약한 이유만으로 조선문단을 특수지대로 생각하려는 견식이 있다면 그것은 문인들의 진의를 모르는 것이요 사오십대의 민족주의를 체험하여 온 선배문인들의 대시대적 심경의 자기고백에 불과하지나 않을까요. 「일지의 윤리」, (□국민문학□ 1942. 3)

향토와 관련하여 신세대는 세계주의적 자유주의의 부산물로서 그 감각을 소지하고 선배세대는 지난 세대의 체험적 자기고백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지방주의와 신지방주의를 대비시키는 김종한의 자기주장이 있음을 아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향토론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에스니시티의 문제는 신지방주의에서는 민족주의와 무관한 소재적 차원의 그것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한다. 이 실증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의 에스닉이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지배 담론에 기여하고 있음을 지적

¹⁹한만수, 앞의 글에서 재인용.

하는 관점도 있거니와,²⁰ 에스닉이라는 소재야말로 식민주의와 반식민주의 혹은 지배와 저항이라는 양극단의 상통하는 담론에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김중한의 시적 담론을 두고 여러 해석이 벌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의 시적 담론이 당대의 문학장에서 행하고 있는 역할이다. 앞에서 조선의 향토 담론이 어떤 목적론적 힘에 의해 작동하고 있는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썼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것은 당대에 현실적으로 작용한 백터의 문제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란 곧 일제말기의 문학의 윤리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다.

김중환이 비록 당시의 내지 중심주의와는 상당히 다른 지방적 특수성론을 펼쳤다고 해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일본이라는 제국에 연동된 것이었다면, 그리고 그 일본 연동이라는 궁극적 지점이 당대의 여러 담론들의 목적론적 지향점이었다면, 그의 신지방주의론이 포스트식민주의적 이화라고 평가되기에는 많은 결여 사항이 있는 셈이다. 물론 향토에 대한 관심 자체가 1937년과 1941년을 거치면서 총독부 정책과 연동되어 억압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억압될 때 그 억압되는 소재를 활용하는 것은 억압에 대한 저항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스트식민주의가 주장하는 이화와 동화의 이중적 내포를 전제하면서, 다시 말해 이화는 곧 동화이고 동화는 곧 이화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김중환에 대해 ‘포스트식민주의적 동화’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화’가 무의식적이고 이면적인 차원에서 수동적으로 작동했다면 동화는 의식적이고 표면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작동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대의 향토론이 총독부의 식민지 정책과 현실적 맥락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향토론이 조장되거나 억압되는 시점을 면밀히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사실도 있다. 총독부의 정책에 따라 향토론은 때로는 순응적 태도로 때로는 저항적 태도로 상호 이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중환에게 이 순응과 저항은 무의식적 차원에서는 동시에 병행되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의식

²⁰ I. 윌러스틴, 성백용 역,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19세기 패러다임의 한계」, 창비, 1994.

적인 차원에서는 선택적이었다. 그리고 무의식의 영역은 해석의 정치학이라는 사후적 대상일 뿐이다. 표현된 담론의 현실적 목적론이 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²¹

김종한의 향토론에 대해 당대의 ‘풍토론’과 연결시키려는 논의는 그런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와쓰지 데쓰로의 ‘풍토론’은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동양적 삶과 사유의 필연성을 제시했고, 그 영향 아래 동양의 여러 민족이 서구 제국주의에 대항해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당대의 일본에서도, 토사카 준처럼, 그의 ‘풍토론’에 대해 서구적인 것과 국수주의적인 것이 묘하게 결합된 담론이라고 비판하는 관점이 있었다.²² 이 비판은 독일의 헤르더적 민족주의가 일본적 국수주의로 변형된 사태를 지적한 것이다. 더구나 와쓰지 데쓰로는 그의 풍토론에서 ‘동양적 동일성’과 ‘동양 여러 지역의 차이성’을 동시에 서술하고 있어서 주목된다.²³ 그는 이 동일성을 예술의 성격으로, 차이를 예술의 양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 관점이라면 조선의 문학은 그것의 성격상 일본문학과 동일한 것이 되고, 양식상 일본과 차이나는 것이 되는 셈이다. 만일 김종한이 와쓰지 데쓰로의 영향을 받았다면, 따라서 김종한은 조선 문학의 특수성을 양식을 통해 구현하면서 성격상으로 일본문학화하는 경로를 밟은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가 많은 문맥에서 ‘향토’를 강조하는 것은 단지 이화의 여지만을 갖는 것이 아니었던 셈이다.

4. 신지방주의의 일제말의 맥락

김종한이 신지방주의를 주장했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것을 동화 속의 이화라고 보는 견해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

²¹이런 의미에서 김종한의 신지방주의가 『녹기』 그룹에 저항하여 형성된 체제 내에서의 이화일 수 있다는 해석은, 민족주의적 시각의 친일문학론이 가진 배타성을 역으로 구부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하지만 김종한이 가진 현실적 담론의 목적론적 운명을 사실 자체로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²²戶坂 潤, 『日本の哲學という魔—戶坂潤京都學派批判論集』, 書津心水, 2007. 107면.

²³와쓰지 데쓰로, 박건주 역, 『풍토와 인간』, 장승, 1993. 218면.

이다.²⁴ 그런데, 그 이화가 앞에서 말했던 목적론적 운명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와 관련하여 김중한의 다음과 같은 발언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문학의 보편성과 조선문학의 특수성을 말하는 자리(「시단의 근본문제를 말한다」, 『국민문학』, 1943.2)²⁵에서 그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세계사의 동향이기도 한데, 세계주의에서 일종의 새로운 지방주의로 돌아간다는…… 따라서 향토적인 것이 더욱 강조되어도 좋습니다. 다만 그럴 때의 마음가짐이 문제일텐데, 그런 향토성은 일본문학을 만들어내는 하나하나의 요소이자 단위가 됩니다.”라고 말한다. 그가 일제말의 신지방주의자이며 그 신지방주의론이 사토 하루오와의 교류 속에서 형성된 것이고, 최재서와 달리 끝내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것이다.

김중han에게 지방주의가 ‘도시인의 불안한 생활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지방을 향수의 감정과 결합시킨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인’ 이념이라면, 신지방주의는 ‘지방인조차 직역(職域)에 안심입명함으로써 지방에 중앙을 건설하는 지방인적 국민의식’²⁶이다. 달리말해 지방주의가 전통적 향수를 자극하는 퇴영적 이념이라면 신지방주의는 각각의 지역에 중심의 논리를 심어놓는 이념이다. 각각의 지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그러나 김중han에게는 조선이 조선 자체의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의 말의 의미는 조선이 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시단의 근본문제를 말한다」에서 “향토성은 일본문학을 만들어내는 하나하나의 요소이자 단위”라고 주장하는 사고방식이 그것을 예증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지방주의였다. 이 신지방주의가 당대의 조선문학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요컨대, 김중han의 신지방주의는 당시 조선문학의 로컬컬러를 드러내던 향토 방언과 소재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대의 지방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는 백석

²⁴윤대석,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 정중현, 『동양론과 식민지 조선문학』, 창비, 2011 참조.

²⁵이하 좌담의 인용은 문경연 외 역, 『좌담회로 읽는 『국민문학』』, 소명출판, 2010에서 이루어짐.

²⁶김중han, 「佐藤春夫先生へ」, 『국민문학』 1942.4, 인용은 大村益夫 外 編, 『金鍾漢全集』, 綠蔭書房, 2005.

²⁷의 시편들이 그의 고향 방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지방주의’와 같은 것이었던 반면, ‘신지방주의’는 그 방언이 야기할 수도 있는 ‘향수의 감정’에 결합된 관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과도 같은 것이었던 셈이다. 시인 김중환이 백석의 시적 방언에 대해서 침묵하면서도, 「두보나 이백같이」에서 “너무나 스케일이 큰 범둥아주의”²⁸를 표상하는 국민시를 읽어내는 관점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만주에서의 디아스포라적 정황을 겪으면서 백석이 민족적 정체성을 넘어선 심리를 묘사하는 장면은, 백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것 자체로 김중환에게는 신지방주의의 면모이기 때문이다. 「두보나 이백같이」에는 배타적 향수심을 자극하는 지방주의는 없는 것이다.²⁹

이와 대비되는 신지방주의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몇 개의 발언을 모아보도록 하겠다.

- ① (지난 일년의 혁신운동이 가져다 준 공허감을 극복하기 위해:인용자)나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서 부여에 가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불상과 백제의 도자기는 정말로 아름답더군요. 그 대범하고 우아한 것을 보고, 이렇게 소박한 아름다움까지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것, 그리고 그것과 개인과의 관계 등이 해결된 것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학정담」, 『국민문학』 1943.9

- ② 일본정신을 뭔가 규격처럼 정해놓고 거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가가 조선의 생활과 풍토 속에 있는 어떤 것을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여과하여 처리할 경우, 오히려 일본문학에 첨가할 만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문학정담」, 『국민문학』 1943.9

²⁷이 백석의 지방주의적 방언과 관련하여, 표준어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임화가 불편한 심정을 토로한 것은 널리 알려진 것이다.

²⁸김중환, 「조선시단의 진로」, 『매일신보』 1942. 11. 16

²⁹물론 배타적 향수와 같은 감정은 없지만 고난받는 존재들의 연대 같은 감정이 시의 이면에 면면히 흐르고 있음도 주목해야 할 요인이다. 이는 백석의 디아스포라적 정서가 그의 향토에 대한 정서적 기울기와 아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백석의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줄고, 「디아스포라와 민족적 정체성」, Comparative Koreans Studies,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2006. 참조

- ③ 지금 시대의 신변적인 것, 예를 들면 아우의 출정 등 육친에 대한 이야기, 내가 생활하고 있는 조선의 자연이나 풍물 등을 그릴 작정입니다. 역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소재는 그것 밖에 없고, 게다가 그런 방식으로 내 나름대로 그린 것이 결코 반식국적인 것이 될 리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문학정담」, 『국민문학』 1943.9

인용을 보면 김중한의 신지방주의가 대략 어떤 풍모를 갖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요컨대 그의 신지방주의란 조선 사람의 터전에서 가장 잘 쓸 수 있는 것을 써서 일본문학에 부가될 수 있는 문학을 하는 것이다. 이 부가 행위가 제국의 권력에 균열을 낼 수 있는가 여부가 김중한의 문학이 이화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요인일텐데, 여기에 작용하는 것이 그 행위의 실천적 힘들이 작용하는 방향일 것이다. 로컬리즘이 단성적 중앙 권력에 대한 다성적 주변의 저항이라고 모두 용인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최근에 김용규에 의해 제기된 ‘비판적 로컬리즘’의 명칭이 의미 있는 것은 이 때문인데, 그는 세계사의 모든 과정이 항상 ‘중심-주변’이라는 가치론적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로컬리티를 구성하는 담론 차원의 모순적 응축물을 누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리다. 이 사실은 이미 아리프 딜릭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³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풍토-풍경-고향이 결합된 것으로서의 향토로서의 로컬리즘이 아니라 초국적 자본의 지구적 획일화의 시대에 횡행하는 모순들의 응축물로서의 로컬리즘을 사고하는 것이다.

식민지시대에 형성된 로컬리즘을 살펴보는 행위가 단지 당대의 현황을 분석한다는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이때 진정으로 역사적 되감기라는 행위가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실천을 현재의 실천으로 되감아 현재에 의미 있는 것으로 재탄생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그것은 실천적 힘들의 역학관계에 결부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지배적인 힘에 의해 상처받는 행위들의 결집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김중환이 징병제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심정을 고백하고 그 이후의 황홀함을 고백하는 심사에 대비되는 그 이전의 상처 입은 마음과도 같은 것일지 모른다.

³⁰아리프 딜릭, 황동연 역, 「지역과 초공동체성」, 『포스트모더니티의 역사들』, 창비, 2005.

이렇게 본다면, 로컬리티란 단지 ‘탄생된 향토’에 연결되는 신원성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요컨대 로컬리티는 변용하는 공공성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마땅하다. 그 이유는 최근의 ‘향토론’이 ‘향토’ 내지 ‘고향의식’ 혹은 ‘민족의식’을 식민주의적 조작의 결과라고 이해하는 편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면, 식민주의의 수단들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향토’론이 좀더 다양한 의미론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 결론

‘향토’가 최근의 식민주의 담론에서 이해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경우로 사유될 수는 없을까? 이를테면, 피식민지인의 향토론이 식민주의자들의 지배담론을 수용한 결과가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식주체의 주관적 능력을 통해 구성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일까? 향토론이 모종의 숭고의 관념과 관계되어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면, 그것이 주관적 대상 변용이라는 사실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러므로 인식주체의 활동이 부각된다. 인식주체의 활동이란 그가 처해 있는 조건적 대상들과 맺는 관계 형성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그 인식 주체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의 문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식민주의적 향토와는 다른 경우의 향토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는 한 시인을 논의해볼 수 있다.³¹

식민주의의 전형적인 지방 도시 대전에서 이른바 로컬컬러로서의 지역문학의 공공성을 고민하게 하는 최초의 시인이 식민지시대의 일본시인이라는 사실이야말로 역사의 간지일 것이다. 아라이 테츠(新井徹)는 철도 부설과 건설된 도시 대전에서, 다시말해 식민주의의 소산일 수밖에 없는 대전에서 시인의 삶을 시작한 시인이다. 대전중학교의 국어교사로 근무하면서 그는 □耕人□이라는 월간 시전문지를 출판한다. 관련사항에 따르면, □경인□은 1922년 1월에 창간되고, 그가 1925년 경성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서 그해 12월에 45호를 내고 중단된 조선 최초의 일본인 시동인지이다. 출판사는 대전에 마련된 ‘경인사’이지만, 인쇄소는 경성, 군산, 히로시

³¹다만, 본격적인 연구 이전이기 때문에 결론에서 스케치만을 하기로 한다.

마에 소재해 있는 것이었다. 당시 아라이 테츠는 우치노 겐지(内野健兒)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아라이 테츠는 이후 1928년 그의 불온한 시와 행동을 못마땅히 여긴 총독부에 의해 내지로 추방되었다.³² 아라이 테츠는 그 이후 사용된 이름인데, 그는 1931년의 ‘일본프롤레타리아 시회’ 창립을 주도한다. 그가 별다른 전향의 기미 없이 지내다가 1944년에 결핵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조선인으로서 도일하여 역시 ‘일본프롤레타리아 시인’으로 활동하고 전향과 일본 문인들을 공격하다가 조선으로 귀국하여 1938년 이후 본격적이고 가장 왕성한 친일시인의 길을 걸었던 충북 음성 출신의 김용제의 삶 또한 역사의 간지가 아닐 수 없다. 요컨대 일본시인은 조선으로 와서 저항시인이 되었고, 조선시인은 일본으로 갔다가 조선으로 와서 친일시인이 된 것이다. 이것은 ‘향토’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향토’가 한 시인의 시적 경향을 좌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당연히 ‘향토’는 발명된 것이라고 해야 하는데, 아라이 테츠의 경우를 본다면, 이 발명이 식민주의의 시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라이 테츠의 시는 당시의 전형적인 서정시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당국의 검열기준을 넘어선다고 평가되고, 결국 □흙담에 그리다(土墻に描く)□(경인사, 1923)라는 시집은 발매금지처분을 받게 된다. 시의 내용이 지나치게 어둡다는 것이 그 처분의 이유이다. 아라이 테츠가 조선을 백의민족으로 묘사하고 식민지 권력의 문제점을 비유적으로 비판하면서 조선의 해방을 암시적으로 드러냈을 때, 나아가 그가 프롤레타리아 시인으로 전환했을 때, 그와 편지를 주고받은 일본의 시인들은 “조선이라는 민족과 국토가 일본의 현재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 듯한 당신에게 이번 조선 시집은 분명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믿는다”는 요지의 발언으로 아라이 테츠의 생각에 동조를 보낸다.³³ 중요한 것은 일본 시인들이 일본과 조선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그 둘을 동시적으로 사고하는 지역문학의 공공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실제로 아

³²모든 사항은 『新井徹の全仕事-内野健兒時代を含む抵抗の詩と評論』創樹社, 1983을 따른다.

³³위의 책, 282면

라이 테츠가 「흙담에 그리다」에서 조선의 암울함을 묘사하기를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그것은 조선과 일본의 지역적 관계가 뿔어내는 모종의 정치적 관계를 표면화하는 언어일 수밖에 없다. 시의 비유적 의미가 정치성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이 로컬리즘은 김중한의 로컬리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아직 그 답을 내놓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이 김중함과 아라이 테츠를 함께 사고하여 과거의 로컬리즘에 대한 역사적 되감기를 수행하려는 의도의 한 모습이다.

식민지적 송고란, 식민지라는 대상을 인식 주관이 자신의 의식 내부로 수용하여 처리하는 미적 범주이다. 그것은 포괄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주관적 변형을 감행한다. 이때 이 변형이 대상 자체를 왜곡하는 일종의 폭력이라면, 모든 송고론은 고진이 말하듯이 폭력에 해당한다. 그런데 폭력에 대한 반대가 비폭력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억압적 폭력에 대해 그 폭력을 무화하려는 반폭력의 문제설정이 필요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식민지의 향토에 대한 생각이 일종의 송고미로 나타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해도, 문제는 그 송고가 억압적인가 아니며 해방적인가 하는 점이다. 송고가 주어진 폭력에 대한 반폭력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면, 식민지적 송고 또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라이 테츠의 시편들이 조선-대전의 향토성과 연동되어 ‘식민지적 송고의 반폭력성’을 담아내는 것이라면, 김중한의 향토론은 ‘일본제국의 송고 이념에 조선을 결합시킨 폭력성’의 그것은 아니었을까? 이 문제는 식민지의 향토론이 송고의 이념과 결합되어 더 많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에 틀림없다.

참고문헌

- 문경연 외 역, 『좌담회로 읽는 『국민문학』』, 소명출판, 2010.
- 박규택, 「로컬의 공간성 이해를 위한 이론적 틀」, 『한국민족문화』 33, 209. 3.
- 심정보, 「문부성과 조선총독부의 초등학교 국민과 지리에 특설된 「향토의 관찰」과 「환경의 관찰」의 비교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 17, 2009.
-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 윤대석,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 윤해동, 「식민지 근대와 공공성:변용하는 공공성의 지평」, 『식민지 공공성-실체와 은유의 거리』, 책과 함께, 2010.
- 정종현, 『동양론과 식민지 조선문학』, 창비, 2011.
- 한만수, 「1930년대 ‘향토’의 발견과 검열 우회」 『‘고향’의 창조와 재발견』, 역락, 2007.
- Dirlik, Arif, 황동연 역, 「지역과 초공동체성」, 『포스트모더니티의 역사들』, 창비, 2005.
- 柄谷行人, 박유하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 和辻哲郎, 박건주 역, 『풍토와 인간』, 장승, 1993.
- 坪井秀人, 「노래와 고향의 재창조」, 『‘고향’의 창조와 재발견』, 역락, 2007.
- 村井 紀, 『南島イデオロギーの發生』, 岩波書店, 2004.
- 安彦一恵 • 佐藤康邦, 『風景の哲學』, ナカニシヤ出版, 2005.
- 朝鮮總督府學務局, 「朝鮮總督府ニ於ケル一般國民ノ教育普及振興ニ關スル第一次計劃」, 1928.
- 戶坂 潤, 『日本の哲學という魔—戶坂潤京都學派批判論集』, 書津心水, 2007.
- 中島弘二, 「自然의 國民化/國民의 自然化—和辻風土論의 再檢討」, 郷土研究會編, 『郷土—表象と實踐』, 嵯峨野書院, 2003.
- 『新井徹의 全仕事—內野健兒時代を含む抵抗의 詩と評論』, 創樹社, 1983.

New Localism and Home-Land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Kim Jong Han with the local theory in a latest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For this purpose, two concepts will be invoked as. The 'locality' and 'home-land', it is. Two concepts that they can be used if mutually supplementary, together we also will argue the necessity of a problem of colonial sublime. Although, is mainly discussed a poet Kim Jong Han, it is not a full-fledged Kim Jong Han. In other word, this article is not a theorization of Kim Jong Han's poet. However, The point that the home-land theory of the late colonial period is related with recent colonial discourse and the point of connection with the concept of the sublime metaphor is to b important, To explore that point, he is figured in this paper. Therefore, this article is synchronized to the recent discourse of locality as written, the discourse considered likely with a few ideas for putting a formal intention to discuss the subject line that can be customized. Thus, locality, home-land, localism, new localism, colonial sublime ect. is to be important.

Keywords : Locality, Home-land, Localism, New localism, Clonial sublime